

빵처럼 맛있게 이웃사랑 익어요

바라밀현장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제빵' 봉사

“오늘은 바게트랑 버터링쿠리라고? 바게트 맛이 나날이 좋아져요.”

“저번 주에는 꾸물거리다가 결국 못 샀어요. 2시에 나오자마자 바로 사야겠어요.”

9월 22일 서울 옥수동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 휴게실 한켠에서 주부들의 구매 환담이 한창이다. 이날은 자원봉사자들이 4층 제빵실에서 빵을 만드는 날. 제빵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후 2시가 되면 식육을 돌우는 빵내음이 복지관 내에 가득해진다. 복지관 곳곳에 붙은 '오늘의 빵' 대자보가 주부들의 지갑을 재촉하면 '사랑을 만드는 빵, 빵을 만드는 사랑'이 완성된다.

복지관에서 만들어 내놓는 빵이 사랑을 만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 질문의 답은 빵을 만드는 4명의 보살들이 쥐고 있다. 정혜전(37), 조정술(54), 최정현(56), 정승원(47) 씨가 바로 그들. 이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빵을 만들고 판매해 그 수익금을 복지관 경영에 오롯이 쏟아 붓고 있다. 제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 빵 만들기 자비행을 펼쳐온 것이 벌써 5년째다.

“복지관에서 익힌 기술을 되돌려 드릴 뿐인데, 봉사니 보시니 하셔서 부담스러워요.”

이들은 98년 복지관의 제빵 강좌에서 만나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 자격증을 따서 제빵 사업을 펼쳐보겠다는 생각 등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러나 정작 자격증을 움켜쥐고는 마음이 달라졌다.

내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미있는 강좌들에만 몰달라 했었는데, 그곳을 드나드는 날이 거듭될수록 이웃의 불행에 지나치게 나몰라라 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묘한 조바심이 일었다.

“저만 그런가 했더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빵 수업 끝나고 함께 짬을 찾는 날이 많아지면서 보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게 된 것 같기도 하구요.”

제빵 봉사를 결의하고 함께 웃던 모습들이 떠올랐는지 최정현(56)씨 한 마디에 다들 말이 많아진다. 그런 재료 배합도 제대로 못하더니 요즘엔 그나마 나아졌다는 농이 한바탕 웃음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온도를 잘못 맞춰 식빵 10개를 고스란히 버려야했던 웃지 못할 실수가 5년이 지난 오늘에야 공개 되기도 했다.

“오랜 기간 한마음으로 봉사하기도 힘든 일일텐데 고맙죠. 매주 후원금으로 전달되는 빵값이 모이면 연 300~400만원은 복지관에도 큰 힘이 됩니다.”

문선영(29) 복지사는 이들과 오일을 달리 해 제빵 봉사를 펼치는 팀이 여럿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제빵 강좌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면서 모두 흐지부지됐다. 그에 반해 네 명의 보살들은 부처님법을 공부하며 키운 불심을 구심점 삼아 선행을 지속해 복지관의 귀감이 됐다. 또한 복지관의 유료강좌를 이용하는 주부들에게 '봉사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 주부들의 새로운 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관의 어른신 행사나 어린이 여름캠프가 있는 날이면 과자와 빵을 별도로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는 제빵봉사자들. 정성들여 준비한 재료와 따뜻한 손길을 모은 빵이 이날도 으로부터 예뻐보여 피어오른다. 보시에 몸과 마음을 담은 보살의 향훈도 함께 피어오른다.

강신재 기자 thaiswhy@buddhapia.com

5년째 자비의 빵 만들기 봉사 강좌 인연으로 이웃 돕고자 결의 판매 수익금 복지관 운영에 큰힘



◇옥수복지관 제빵실에서 봉사자들이 식빵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칸드로 린포체 (F)

관용의 정도 창조위해 노력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심하게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를 아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순수한 자비심과 동정심이 일어난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연스런 마음의 상태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생각되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연스런 상태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대승적 접근 방식은 그 마음으로 아무런 조작이나 계획 없이 다가가는 것입니다.”(‘카구 라이프 인터내셔널’ 중에서)

인도 무수리(Mussoorie)에 위치한 삼텐체 수행센터에서 칸드로 린포체는 나병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의복과 생필품들을 그들에게 분배하고, 다른 필요한 구호품 등도 수시로 전달한다. 그는 지역 학교에 새 책상과 결승을 기증하기도 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땅바닥에서 공부해야 했기에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었다. 삼텐체 수행센터의 비구니 스님들과 서양에서 온 수행자들은 정기적으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수업을 한다.

린포체와 여성 수행자들은 사원의 경내에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기도 한다. 비구니 스님들은 수행센터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윤력에 나선다.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린포체는 티베트의 비폭력 사회운동의 정착을 위해 데킬링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하기도 했다.

동체대비신 그리고 지혜, 관용의 정도를 창조하기 위해 칸드로 린포체는 이처럼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

고 있다. ‘삼텐체 자선(慈善) 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진행되는 보시행은 가난한 지역민을 위한 건강 및 교육 사업과 ‘나병 프로젝트’, 불서 발간 등을 비롯해 그의 본사인 민드롤링 사원과 연관된 다양한 포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자비행은 중생을 향한 ‘대승적 접근방식’의 일환임은 물론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곳에 자비가 표현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비로운 생각이 일고 다음으로 친절, 관용, 인내와 지혜를 통해 행동하는 자비가 옵니다. 그것들은 자비의 서로 다른 특징들로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이 행복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다른 중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원치 않는 것처럼 다른 중생들도 그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할 잠재력을 지닌 채 진정으로 자비로워지고 남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대승적 접근 방법입니다.”(삼텐체 수행센터 홈페이지(www.vkr.org) 중에서)

칸드로 린포체는 서구인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 고승들의 법문과 경전을 번역하는 일을 위해 <다르마스리 저널(Dhammasiri Journal)>을 발간, 모든 종파의 티베트 고승들의 핵심 법문을 소개하고 불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등 온-오프라인상의 문서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경 기자

정기적 의료·교육 지원 등 포교사업 펼쳐

불법전파 위해 <다르마스리 저널> 발간



◇인도 삼텐체수행센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한 칸드로 린포체(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민초들 건강 우리가 맡겠소”



◇영남불교대와 대구보건대 자원봉사자들이 9월24일 실시한 '사랑의 헤민서 무료진료' 장면.

대구 영남불교대학 부설 사회복지법인 '좋은인연(대표 박원권)'이 복지관에서 '사랑의 헤민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대구보건대학 보건복지전문자원봉사단이 함께한 이번 무료진료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9월 24일 각종 성인병 검진,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마용 서비스 등이 진행됐다.

영남불교대 '헤민서 무료진료'
교수, 학생 80여 봉사단 파견

이날 진료에는 대구보건대학 교수와 학생 80여명 등 대구도 의료봉사단이 파견됐고, 무료진료소를 찾은 인근 지역주민 100여명은 5개 팀(재활훈련·치의생·이마용·일반·종합)으로 나뉜 진료부스를 돌며 한 사

랑당 평균 3건 이상의 진료를 받았다. 특히 성인병 검진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 환자들이 줄을 서서 차를 기다렸다.

헤민서 무료진료를 펼치고 있는 대구보건대학 보건복지자원봉사센터 담당자 백신현(31)씨는 “대구지역 복지관과 관공서 등 14개 기관과 협력해 2001년 10월부터 매달 6회씩 실시해온 무료진료의 반응이 좋아 올해부터 10~15회로 진료봉사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남불교대 총무 밀허스님은 “조선시대 일반 민초들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졌던 헤민서 정신을 되살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진료 행사 기획 및 진행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053)471-0991 대구=박원권기자

제1회 전국 중학생 컴퓨터그래픽 정보검색 경진대회



- ▶ 참가자격: 전국 중학교 재학생
 - ▶ 대회부분: 가) 컴퓨터 그래픽 부문 - 캐릭터 디자인 - 포스터 디자인 - 심벌마크 디자인 - 브로슈어 디자인 나) 정보검색부문 - 이론 40% - 실기 60%
 - ▶ 대회일시: 2003년 10월 14일(화) 오후 1시 ▶ 대회장소: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 ▶ 대회접수: 가)접수기간 - 2003년 10월 1일 ~ 10일(마감 시간 오후 5시) 나)접수방법 -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및 방문 접수(행정실) 본교 홈페이지에서 대회참가신청서 1부를 다운 받아 작성하고, 현재 재학중인 중학교의 학교장 추천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함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시에 한함) 다)본교 홈페이지 - http://cheongdam.hs.kr
 - ▶ 후 원: 평택시·평택교육청·평택상공회의소·평택문화원·기남방송·현대불교신문
 - ▶ 주 최: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 ▶ 주 관: 도선사·청담문화재단
 - ▶ 시상내역
- | 구분 | 시상인원 | 상 금 | 기타특전 | 구분 | 시상인원 | 상 금 | 기타특전 |
|----|----------|--------------|-------------------|-----|----------|--------------|--------------------|
| 대상 | 부문별 각 1명 | 부문별 700,000원 | 본교 입학자격 및 3개년 장학금 | 동상 | 부문별 각 3명 | 부문별 200,000원 | 본교 입학자격 및 1학기본 장학금 |
| 금상 | 부문별 각 1명 | 부문별 500,000원 | 본교 입학자격 및 3개년 장학금 | 특별상 | 부문별 각 5명 | 상 품 | 본교 입학자격 부여 |
| 은상 | 부문별 각 2명 | 부문별 300,000원 | 본교 입학자격 및 1개년 장학금 | 입선 | 부문별 약간명 | - | 본교 입학자격 부여 |
- ▶ 심사위원: 정보 및 디자인 분야의 권위있는 관계 대학교수와 본교의 컴퓨터관련 교사 및 디자인 교사로 구성
 - ▶ 심사발표: 2003년 10월 18일(토) (예정) ▶ 시상일시: 2003년 10월 21일(화) (예정)

꿈이 있는 학교 열정이 있는 학교
21세기 디지털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인적자원 지정 자율학교 · 특성화 고등학교

